

삼성전자, IOC와 미래세대 인재 육성 지원한다

청소년 CSR 프로그램 ‘솔브포트모로우’ 홍보대사 위촉 전세계 ‘톱 10팀’ 선정…우수 솔루션 전시·체험의 장도

삼성전자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함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8일(현지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삼성 하우스에서 글로벌 청소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삼성 솔브포트모로우’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캐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김재열 IOC 집행위원(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아우비타 라필라 IOC 올림픽 총 365 위원회 위원장, 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성일경 삼성전자 유럽 총괄 등 삼성전자, IOC, 삼성 솔브포트모

로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삼성 솔브포트모로우’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역량을 통해 지역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다. 삼성전자와 IOC는 지난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삼성 솔브포트모로우’ 홍보대사를 처음 운영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삼성 솔브포트모로우’ 홍보대사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우승팀 가운데 혁신성, 확장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이 탁월한 10개 팀이 선정됐다.

운동 중 보정기를 습기·충격·손상으로 부터 보호하는 스포츠 헤드밴드 등 스포츠 기술 부문 5팀과 상처 상태를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감염을 감지하는 AI 기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삼성 하우스에서 캐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삼성 솔브포트모로우 홍보대사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반 스마트 밴드 등 건강과 환경 부문 5팀으로 구성했다.

삼성전자와 IOC는 ‘삼성 솔브포트모로

전시관은 9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타트업 육성 센터 스마트시티랩에 마련되며, 누구나 방문해 홍보대사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삼성 솔브포트모로우 홍보대사인 미국의 다니엘 양은 운동 중 습기와 충격으로부터 보정기를 보호하는 헤드밴드를 선보인다.

향후 홍보대사들의 솔루션은 실제 제품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난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캐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기술을 이용해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그들이 스포츠와 기술,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활용해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은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과 스포츠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전세계 청소년들이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힘써 왔다”며 “이번에 선정된 삼성 솔브포트모로우 홍보대사가 기술과 스포츠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교육 중심 활동으로는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삼성희망디딤돌, 삼성드림클래스, 삼성푸른코끼리, 기능올림픽기

술교육과 같이 청소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C랩(인사이드·아웃사이드), 상생펀드·ESG펀드 조성, 협력회사 인센티브 지원,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나눔키오스크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자동차업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제정 촉구

주요 품목 관세 15%서 25% 인상 방안 검토에 우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현재 밸이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이달 내 제정을 촉구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

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회, KGM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에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며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에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 ISE서 6관왕 기록

글로벌 유력 매체서 호평

최고의 제품상 등 수상

‘3D 플레이트’ 기술 적용



삼성전자 모델이 초슬림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는 어워드에서 3개의상을 받았다.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는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3D 플레이트’를 적용해 별도의 안경이나 두꺼운 헤드셋 박스 없이도 입체감을 선사한다. 신발, 의류 등 전시 제품이나 모델의 모습을 360도 회전 영상으로 실감 나게 구현할 수 있다.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는 이 밖에도 북미와 영국 주요 AV 매체가 별도로 심사하여도 깊이 있는 3D 효과를 제공해 리테일

·전시·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상업 환경에서 물입감을 극대화시킨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니지 시장은 2029년 1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25년 3분기 수량 기준 36.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17년 연속 세계 시장 1위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남구

남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 안내

운행시기 2026. 2. 9. ~ (※평일만 운행)

이용대상 남구 공공시설 이용자 누구나

문의전화 남구청 교통행정과 ☎ 062-607-4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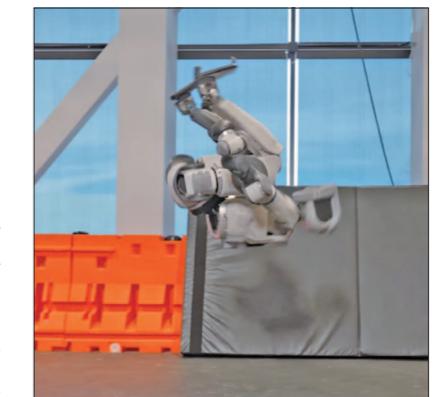
구 분	남구청 (기/종점)	푸른길 도서관	진 월 은 도서관	진 월 은 행 복지센터	송 암 동 행 복지센터	효천1지구 마트 도 서 관	빛 고 은 테마공원	밀문 이선제 부조모 (포종사)	대 촌 동 행 복지센터	승 촌 게이트볼장	승 촌 프 봄 골프장 (회자지)
1회차	6:30 8:40	6:32 8:31	6:34 8:28	6:38 8:25	6:42 8:21	6:52 8:10	6:56 8:01	6:59 7:57	7:04 7:52	7:14 7:44	7:26 7:36
	9:20 11:31	9:22 11:22	9:24 11:15	9:27 11:12	9:33 11:08	9:40 10:58	9:45 10:53	9:48 10:50	9:52 10:45	10:01 10:35	10:11 10:27
3회차	12:03 14:14	12:05 14:05	12:07 13:57	12:10 13:54	12:14 13:50	12:20 13:40	12:25 13:35	12:27 13:32	12:32 13:28	12:42 13:18	12:54 13:10
	14:46 16:57	14:48 16:48	14:50 16:45	14:52 16:37	14:57 16:33	15:04 16:23	15:09 16:18	15:12 16:15	15:15 16:11	15:25 16:01	15:37 15:53
5회차	17:29 19:38	17:31 19:29	17:33 19:26	17:36 19:23	17:40 19:19	17:49 19:08	17:54 19:02	17:57 18:58	17:59 18:54	18:10 18:44	18:20 18:36
	~	~	~	~	~	~	~	~	~	~	~



‘연속 공중제비’도 거뜬…아틀라스, 실전 투입 초읽기

CES 이후 첫 영상 공개…사람 같은 백팀블링 ‘척척’

강화학습 기반 제어 기법·전신 제어 알고리즘 완성



현대차그룹이 생산 현장 배치를 준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동작 학습 단계를 넘어 실전 투입을 위해 훈련 모습이 공개됐다. 텁블링을 하면서 병판길을 걸으면서 넘어지거나 주자앉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줘 얼마나 이러한 동작들이 로봇에게는 고난이도인지를 확인시켜줬다.

이번 아틀라스의 연속 공중제비 영상은 고난도 동작 자체보다도 도약·공중·자세 제어·착지 충격 흡수·자세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수록하는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인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는 지난달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선보인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아틀라스 관련 영상이다. 아틀라스가 기존에도 옆돌기와 백 텁블링을 연속으로 공중제비를 넘는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CES 2026에서 아틀라스가 각 선보인 적은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기계제어 선수처럼 두 동작을 연속해서 유연하게 수행했다.

더욱이 아틀라스는 공중제비의 마무리 동작인 착지도 한 번 흔들림 없이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성공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측은 “이제 아틀라스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가능됨에 따라 연구용 바전의 성능 테스트는 마무리된다”며 “우리 연구원들은 RAI(Robotics and AI)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신 제어 및 이동성의 한계를 시

험하기 위한 최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스턴다이나믹스는 현대차그룹 제조 환경에서 아틀라스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CES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등 생산 거점에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투입하고 공정 단위별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아틀라스 도입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8년부터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과 같이 안전성과 품질 효과가 명

확히 검증된 공정에 우선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

위를 넓힐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 sky@